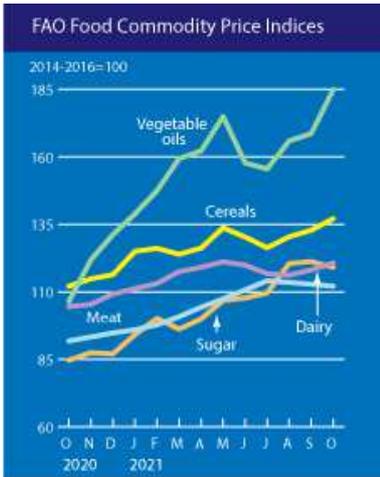




##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2.2% 오르며 연속 상승

- 식품가격지수도 3% 오르며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 10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20.7포인트로 전월대비 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년동기대비 15.5%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버터, 전·탈지분유 가격은 꾸준한 수입 수요로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의 원유공급량이 감소하며 유제품 재고가 빠듯하고 오세아니아의 원유생산량 증가가 미비함에 따라 세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제품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즈의 경우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함에 따라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AO 식품가격지수도 전월대비 3% 오른 133.2포인트로 전년동기대비 31.3%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지류 및 곡물 가격이 전월대비 크게 오르며 가격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11월 4일자 >

## [지속가능] 英 낙농업계, 탄소 중립 달성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메탄가스 배출량 저감, 천연 냉매 사용, 핵심성과지표 마련 등



영국 낙농업계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낙농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근 이니셔티브 운영위원회는 낙농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탄과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불소 화합물 대신 천연 냉매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낙농의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을 18% 향상시키고, 원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줄이는 등 큰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며, 낙농가는 물론 모든 산업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자원 및 태양열, 혐기성 소화조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낙농산업 발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출처 : thegrocer.co.uk, 11월 4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